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 해외역사문화탐방

대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1학년으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차고 보람차게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

늘 고민하던 중 우연히 해외 역사·문화탐방 모집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신청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결정은 제 대학생활의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처음 떠날 때는 그저 설레는 마음뿐이었지만

탐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은

마음이 한층 더 넓어지고 깊어진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월 26일 : 인천공항 출발, 하노이 도착,
호안끼엠 호수·36거리 탐방, 기차길탐방

출발 전부터 1학년 새내기답게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베트남쌀국수로 늦은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가득한 거리, 프랑스풍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호안끼엠 호수와 36거리를 걸으며
“아, 진짜 해외탐방이 시작됐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고
저녁시간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탐방의 의미를 들으며 앞으로의 일정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11월 27일 : PTIT대학교 방문

하롱베이 이동, 야시장 탐방

둘째 날은 이번 탐방의 핵심이었던
PTIT 대학 방문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ICT 교육의 중심지답게
학생들의 밝은 표정과 강의실의 생동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PTIT 학생들이 직접 종이학을 접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릴적 종이학 천마리를 접어야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에 참 많이 접었던 날들이 생각나서 감회가 새로왔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똑같은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하롱베이로 이동해 야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의 에너지와 활기찬 분위기는

해외 탐방의 재미를 더 느끼면서 야시장에서의 학우들과 단합하여 물건도 사고 정말 잊지 못할 시간였습니다.



11월 28일 : 하롱베이 유람선, 키스바위·동굴 탐험, 선상 해산물 식사

세 번째 날은 이번 탐방의 하이라이트였던
하롱베이 유람선 체험이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석회암 절벽들이 솟아 있는 장관,
에메랄드빛 물결, 잔잔한 바람…
모든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특히 키스바위는
“자연이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동굴 탐험과 노 젓는 배 체험을 하며
자연의 거대한 힘과 신비함을 직접 느꼈고
선상에서 먹은 해산물 요리는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이날만큼은 말 그대로 ‘미식 여행’이었습니다.





11월 29일 : 호아로수용소,바딘광장·호치민 생활관·한기동사원, 문묘 탐방

넷째 날은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찾은 호아로 수용소에서
식민지 시절 많은 독립운동하다 희생되었던 장소로
그 안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그 속에서 지켜낸 자유의 가치를
현장에서 깊이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딘광장과 호치민 생가는
베트남 독립의 상징적인 장소로
호치민 주석의 검소한 삶과 리더십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묘에서는 베트남 최초의 국립교육기관을 둘러보며
오랜 세월 이어져온 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전통 돌문, 붉은 기와, 고즈넉한 정원 풍경은
베트남의 고전미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이 학사모를 쓰고 졸업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더 한층 와닿는 장소였습니다.



11월 30일 : 시내 일정 후 귀국

마지막까지 햇살 좋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콩카페에서 코코넛커피를 마시며

며칠간의 일정들을 되새기고

함께한 학우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헤어짐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1학년으로서 이번 탐방에서 느낀 점

이번 해외탐방은

“새내기 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 책으로만 보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울 수 있었고,

●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으며,

● PTIT 대학 방문을 통해

국제교육과 학술교류의 가치를 배웠고,

● 새로운 학우들과의 추억은

대학생활의 가장 소중한 첫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호아로 수용소에서 느꼈던

자유와 독립의 무게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함께한 탐방팀에게 감사하며

1학년이라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학우들과 학교 관계자분들 모두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함께 웃고, 걷고, 먹고, 사진 찍고...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맑은 베트남 하늘 아래에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탐방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더 열심히,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